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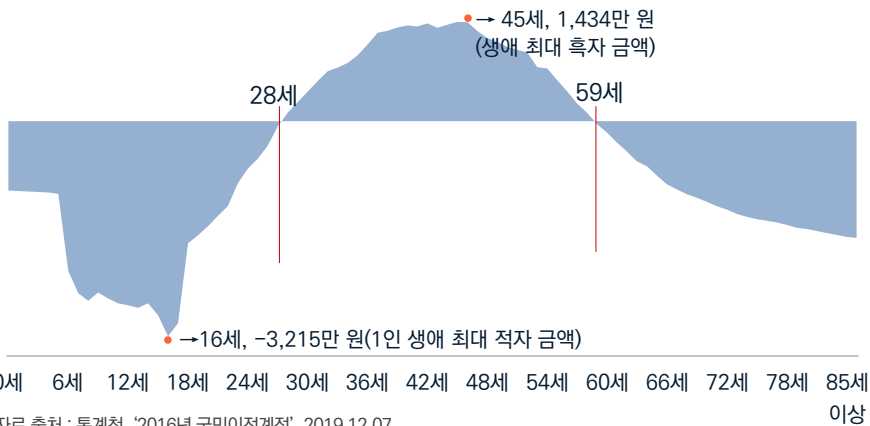
2



한국인 45세 때 1,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다,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

- 통계청이 지난 12월 7일에 발표한 국민 1인당 노동 소득과 소비를 조사한 ‘2017년 국민이전계정’에 따르면, ‘노동 소득’보다 ‘소비’가 더 많은 ‘적자 시기’는 27세까지며, 28세부터 58세까지 ‘흑자 시기’로 가다가 59세부터 다시 ‘적자 시기’로 전환됨
- 최대 적자 연령은 ‘16세’ 3,215만 원으로 전년도 2,867만 원보다 348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교육 소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임
- 28세부터 59세까지는 흑자 시기인데 최대 흑자 연령은 ‘45세’, 1,484만 원으로 전년 1,435만 원 대비 4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1인 생애 주기별 손익(노동소득액- 소비액) (만 원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16년 국민이전계정', 2019.12.0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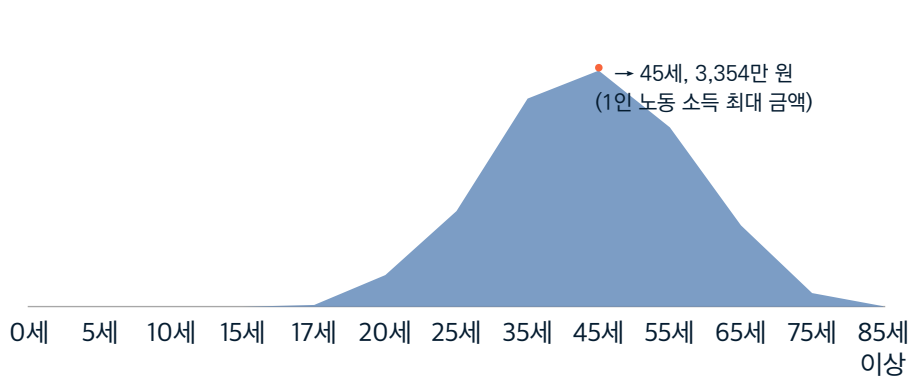
**통계청 자료 그래프와 달리 이해하기 쉽게 적자는 아래로, 흑자는 위로 표시하였음

***노동소득은 자본소득과 이전(移轉, transfer) 소득을 제외한 노동 서비스의 수익으로 구성된 소득임

● 1인당 노동 소득은 45세에서 3,354만 원으로 가장 높음

- 1인당 노동 소득은 17세에 25만 5천 원(전년도 55만 5천 원)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45세에 3,354만 원(전년도 41세 3,209만 원)으로 최대에 이른 후 하락함

[그림] 1인당 노동 소득 (만 원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16년 국민이전계정', 2019.12.07.